

서 평

『이봉순 자서전 : 도서관할머니 이야기』의 출간에 즈음하여

김 정 근*

『이봉순 자서전: 도서관할머니 이야기』(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는 새로운 세기의 초입에 문헌정보학 연구자, 학생, 현장의 사서 앞으로 배달된 아주 특별한 선물처럼 보인다. 우선,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물의 특별함이 단지 처음이라는 점, 그 희소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내용이 가지는 무게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담긴 메시지의 소중함이 선물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어떤 연륜과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자신의 삶과 일을 이처럼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허물된 점까지도 포함하여 솔직하고 과감하게 그려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책을 음미하면서 거듭 진한 감동에 휩싸이는 경험을 하였다.

사실 나는 이 책의 저자인 이봉순 관장님을 잘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아마 관장님 쪽에서도 소문을 통해 어렵풋이 나를 아시는 정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대하는 나의 입장은 책의 끝 부분에 ‘작은 거인’이라는 발문을 붙인 혜천대학 최성진 학장님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성진 학장님은 개인적 친분과 교류를 통한 근접 관찰을 기초로 삼아 섬세하고 아름다운 인물론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또 다른 한편의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굳이 말한다면, 나는 이봉순 관장님에 ‘관하여’ 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조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봉순 관장님과 관련하여 글쓰기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는 약간의 사연같은 것이 있다. 나는 그 사연과의 연관 속에서 관장님의 업적에 대해 언급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서전에 대한 나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해볼 것이다.

나는 1980년대 전반에 지금의 위치에서 연구생활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 얼마 간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이전 12년 반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익힌 견문과 그 때 수집하여 귀국하며 컨테이너 화물로 부쳐온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풀어먹이는 일을 하였다. 한동안은 잘도 먹혀들어가는 것 같았다. 신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김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장

다. 나의 언어가 탄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어색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학생들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발을 헛딛는 느낌, 기차 바퀴가 선로를 벗어난 느낌, 그런 것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 때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밀고나갈 따름이었다. 몇 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나중 분석능력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때 내가 느꼈던 불편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학문의 도구인 언어와 학문의 대상인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나는 수입언어와 땅 낮은 줄 모르고 꺼져만가는 도서관 현실과의 이질성이 문제였던 것이다. 거기서 헛도는 느낌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것은 학문방법론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조금만 주의깊게 들여다 보면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학술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생산되는 당시 그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거기에는 그들의 사람, 장서, 시설, 서비스 시스템의 현단계가 전제되어 있다. 학술활동은 그들의 현실에 대한 언급이자 현실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언어가 그대로 우리나라로 옮겨졌을 때 언어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현실을 잃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나름의 현실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 시기에 내가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현실,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도서관의 현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실 일반이었다. 수준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어디에도 수입언어와 일치하는 현실은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일치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의 현실은 그것의 단계에 적합한 우리의 언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입언어는 현실적합성과 유용성의 면에서 분명 한계가 있었다.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생산성이 낮았다.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졌다. 어찌보면 우리 현실에 비슷하게 맞는 듯 하면서도 꼭 들어 맞지 않았다. 빌려 입은 옷과 같았다. 이제 문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교수와 학생과 현장의 사서가 함께 읽고 그것을 도구 삼아 우리 현실이 안고 있는 저발전의 문제를 들추어 내고, 동시에 그 속에 함장되어 있는 어떤 해결책과 발전 가능성을 짚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천적인 자생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큰 변화가 없지만 식민성에 완전히 찌들어지내던 1980년대 당시의 학문 풍토에서 언어의 토착화 작업은 지난한 과제였다. 백안시 아니면 무관심으로 응대받기 일쑤였다.

나는 언제나 심란하였다. 무슨 탈출구가 없을까 하고 궁금하기만 했다. 내가 소문을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도서관을 가 본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1986년 쯤이 아니었던가 싶다. 나는 그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한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건물의 아름다운 외관을 한참 즐기다가 문득 1층 홀을 들어서서 순간 느꼈던 아찔한 황홀감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나는 금방 눈이 흐려져 왔다. 완전히 낮이 나갈 지경이었다. 다음 순간 시원함이 느껴져 왔다. 오래 묵은 체증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사방이 온통 너무도 아름다웠다.

책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이봉순 관장님과 건축설계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을 읽어 보면 건축계획서와 그것을 반영한 설계도면에 훗날 방문객으로 하여금 혼을 놓게 만들고, 체증을 풀어 내리게 하고, 황홀감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장치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부장은 자신이 앞으로 그려야 할 설계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데 노력하였고 나는 그에게 내 생전에 대학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하나 지어 놓고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고백하였다. 그 옛스런 도서관 옷을 벗어 버리고 지금까지 꼭꼭 닫아 놓고 잠궜 두었던 공간을 탁 터서 이용자를 몰아내는 도서관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 (171쪽)

나는 되도록 옛날 도서관 개념에서 벗어나 열려 있고 넓은 공간을 많은 인원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였다. (171쪽)

1층 홀에서 받은 충격과 감동은 좀체 가라 앉을 줄 몰랐다. 각 층, 각 실을 돌면서 서가 사이를 걸어 보기도 하고 서비스 데스크에 다가가 말을 걸어 보기도 하는 동안 새로운 충격과 감동이 몰려 왔다. 한마디로 어떤 완벽한 질서와 조화 같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이 책에 붙여진 최성진 학장님의 발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나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은 장서량, 건물, 사서들의 자질 등이 모두 훌륭하지만 필자는 이 도서관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것 보다는 모든 정기간행물이 결호 없이 완전하게 꽂혀 있고, 최근에 발행된 개정판 참고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정리한 듯 책들은 언제나 서가에 반듯이 꽂혀 있고, 사서들이 상냥하게 이용자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하는 정경을 보면서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287쪽)

그 뒤 나는 이 도서관을 여러번 드나들었다. 혼자서도 가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기도 했다. 배우는 것이 많았다. 갈 때마다 새로운 부분이 눈에 들어 왔다. 매번 사람을 놀라게 하는 숨겨진 비밀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한 가운데 이와 같은 건물이 들어 서고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으며 '기적'이었다. 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사건'과 '기적'의 배후에 이봉순 관장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존경스러웠다. 이 땅의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이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해 보이신 솜씨는 유보없는 찬사를 받아 마땅하였다. 나는 부산에 돌아와 제자들을 포함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봉순 관장님은 큰 일을 하셨다. 책 100권을 쓰신 것보다 낫다.' 이것은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 뒤 1987년 가을학기가 시작되자 내가 몸 담고 있는 부산대학교에서 일이 일어났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전면에 서고 총학생회가 배경이 되어 이른바 대학도서관개혁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부산대학교는 말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으로서 40년의 역사를 지녔다고 자랑하면서 도서관 직원 69명 가운데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정사서 자격증을 갖춘 정식 직원이 고작 5명이었다. 학사 정사서가 몇 명 더 있었으나 그들은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고졸과 전문대졸의 학력이었다. (나는 개인의 학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대학도서관 사서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한가지 사실이 당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실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었다. 장서의 난맥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서비스의 질은 형편 없었다. 교수들이 외국서적을 주문하면 국내에 없는 경우 안들어오기가

일쭉였으며 다행히 들어오는 경우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하나의 예로서, 당시 폐가제 하에서 학생이 원하는 책을 신청서에 적어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창구를 통해 신청을 하면 안에서 접수를 하면서 1시간 후에 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학생이 지정된 1시간 후에 예의 창구에 접수증을 넣으면 안으로부터 요행으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서가에 책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후자인 경우, 학생은 말 한 마디 못하고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2만명 정도의 잠재적 이용자가 드나드는 큰 캠퍼스에서 일일 평균 300여 권의 책을 대출해주고 있었다. 이것이 당시 서비스의 수준이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은 역대 대학경영자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전적으로 방치된 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학 내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이며 희극이었다.

학생들에 의한 부산대학교도서관 개혁운동은 한번 불이 붙자 꺼질 줄 몰랐다. 시작 후 끝날 때까지 무려 1년 반 동안을 끌었다.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부산대 도서관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길고 긴 대자보 40편을 생산하여 교내 곳곳에 붙이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전교에 뿌렸다. 데모대의 위세에 밀린 총장은 드디어 용단을 내렸다. 인사도 쇄신할 것이며 장서도 늘리고 시설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새 도서관도 짓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총장은 학생들에게 출장비를 마련해 주면서 어디든 가서 제일 잘 지어진 도서관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였다. 나는 얼른 학생들에게 이화여대 도서관을 가 보라고 귀뜸해 주었다.

이대 도서관을 보고 온 학생들은 성난 사자처럼 길길이 날뛰는 것이었다. 마치 무엇이 분해 못 견디는 사람들 같았다. 무엇에 원수진 사람들 같기도 하고 원통한 사연이 겹겹으로 쌓인 사람들 같기도 하였다. 학생들을 달래기 위해 출장을 보냈던 총장은 짐이 더 무거워졌다. 그들의 말인즉, 이대 도서관에 갔더니 사서진의 학력이 부산대 도서관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더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이대 도서관에는 학사정사서가 18명 확보되어 있었으며 그 중 10명은 석사학위 소지자라는 것이었다.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데모를 하는 학생들이 자극을 받은 부분이 도서관의 건물이었다. 일단 이대 도서관을 본 학생들에게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사자 떼처럼 총장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이제껏 건물도 하나 제대로 못 짓고 뒤틀리고 있었느냐는 식이었다. 당장 60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내라고 성화였다. 학생들은 건물 약속을 확실히 받아 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대 도서관의 내부와 외부를 찍은 사진 몇 백 장을 대지에 붙여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도서관 앞, 대학본부 앞, 정문 앞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전시대 앞에 서서 종일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때 총장의 출장비를 받고 서울로 올라 가 이대 도서관을 견학한 학생들은 도서관의 내외부를 눈이 뚫어져라 살펴본 후 잔디밭에 나와 앉아 울었다고 한다. 지금 울산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k사서(당시 3학년) 같은 사람은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는 후문을 들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연구실에 앉아서 눈시울을 적시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우리들의 눈물 속에는 부러움, 억울함, 분노가 섞여 있었다.

총장이 약속한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나는 도서관 부관장 발령을 받아 2년간 도서관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그 다음 총장이 들어서더니 도서관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고 말하며 관장 발령을 냈다. 다시

2년간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전임 총장이 약속한 6000평은 간 곳이 없고 2000평 규모의 신축 건물을 시작해 둔 상태에서 임기만으로 물러났다. 후임총장 때 완공을 본 건물이 마치 성냥곽 같이 생긴, 국립대학 캠퍼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무런 특색도 없는 지금의 제1도서관 건물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 위대한 도서관은 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자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에는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종이없는 도서관(paperless library)을 말했다. 벽없는 도서관(library without walls)이라고도 했다. 곧 그런 시대가 된다는 식이었다. 일부 바람몰이 연구자들과 거기에 현혹된 현장의 사서들은 이미 실물장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좌왕우왕하고 있었다.

사서의 운명에 대한 불길한 예언도 이들에게서 나왔다. 그것이 과연 맞는 고민이었는가. 나는 일찍이 개체 도서관을 완성시켜 본 경험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유행을 따라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 때도 나는 이대 100주년기념도서관을 하염없이 쳐다 보았다. 저와 같은 도서관의 용도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서 얻은 지혜를 기초로 삼아 주변의 젊은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반대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결과가 나중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민음사, 1997)로 묶여 나왔다. 거기서 우리는 브릭(brick)과 바이트(byte)의 상호보완을 주장했다. 바이트에 의한 브릭의 일방적 대체(replacement)는 안되는 말이며 틀린 방향이라고 논박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상식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조사 활동을 통하여 Michael Gorman 같은 연구자를 찾아내는 등 일반성을 가지는 정설을 밝혀내어 소개한 것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앞서려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 때의 일은 우리 가운데 기본이 서 있지 않았으므로 유행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제대로 견고하게 구축된 오늘의 도서관이 없는 상태에서 쉽게 미래의 환상과 광기에 빠져드는 사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까지 책을 말하면서부터 디지털제일주의자들의 목소리는 한결 수그러들었다.

내가 앞에서 제기한 언어와 현실의 괴리 문제, 그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낯설지만 수준이 높은 수입언어와 낯익은 반면 수준이 낮은 도서관 현실이 버티고 있다. 우리는 학문은 토착화 시키고 현장은 끌어 올려 서로 간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대 100주년기념도서관은 처음부터 나에게 책100권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본다면 무리일까. 나는 이대 100주년기념도서관이야말로 완벽한 한국어이며 동시에 완벽한 한국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우리말로 된 문헌정보학이 가장 탁월하게 꽃핀 지점, 동시에 우리 도서관 현실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진 지점, 나는 거기가 바로 이대 100주년기념도서관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이 도서관의 방과 코너는 시설이자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이봉순 관장님의 자서전 출간에 즈음하여 나의 개인적 체험과 관련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람된 이야기를 해 보았다.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소개한 최성진 학장님의 아름다운 문장을 읽어 보기 바란다. 앞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이봉순 관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책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관장님의 건승하심을 빈다.